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❹ 아미타여래도 납의



▶ 한줄 요약
일본 교토 선림사에 소장된 〈아미타여래도〉는 고려불화 중에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아미타부처의 납의 문양의 디테일은 놀라울 정도다. 그 문양에 바로 극락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아미타부처님, 空의 옷을 입다

日 선림사 소장 '아미타여래도'
아미타부처 납의 문양들 '화려'
경전 따르면 '공기화 · 영서화'
문양 통해 극락세계를 표현해
당초문 일본용어 지양을 해야

Interbeing의 세상

세상에서 가장 긴 영어 단어로 'Floccinaucinihilipilification'라는 용어가 있다. 그 뜻은 '뜬구름처럼 여기기'. 발음을 표기하자면 '플럭시-너시-니힐리필리-피케이션' 이다. 이렇게 긴 단어가 있다는 것도 흥미롭지만 그 뜻 또한 놀랍다. 특히, 재물을 뜬 구름처럼 여긴다는 것이지만, 나아가 세상의 것 무엇이든 무상(無常)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세계 4대 생불로 추앙받는 틱낫한 스님은 그의 설법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하늘의 구름이 흩어지는 것'에 자주 비유하셨다.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름의 죽음은 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라짐은 생겨남과 함께 존재하기에."

구름으로 하늘을 떠다니는 것도 아름답지만 비가 되어 땅에 내리는 것도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기억난다.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로, 수증기로, 다시 구름으로, 다시 물로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다. 모두 뜬구름과 같다. 모두 무상하다.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 속성을 못 이기고 사라져버린다. 무상하다는 스스로의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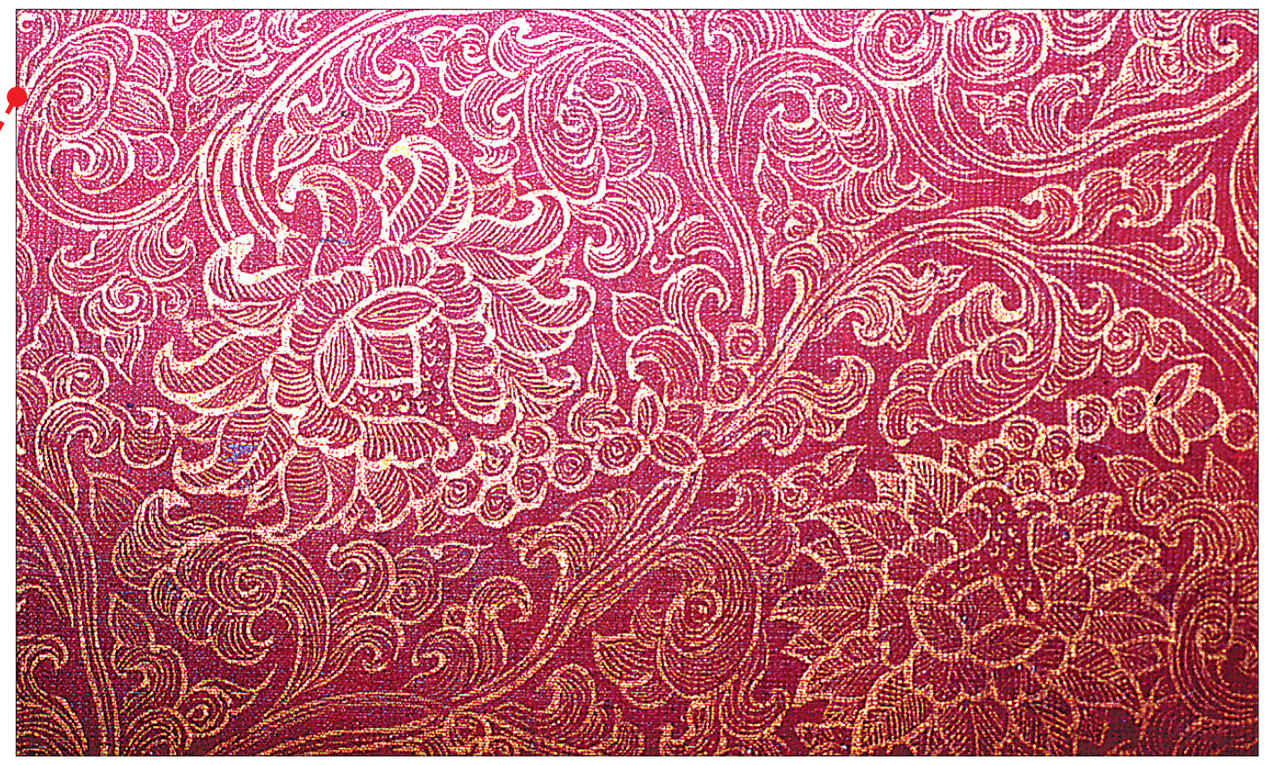
중생 속계(俗界)도 무상하지만, 법성 법계(法界)도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속성은 속계나 법계나 동일하다는 진리. 이것이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화엄사상의 요지이기도 하다. 불화 또는 불교미술에서 보는 세계는 법계가 무상하게 연기(緣起)-연생(緣生)-연멸(緣滅)하는 모습이다. 끊임없이 불교미술로 또 불교경전으로 보여주고 또 언급하고 있는, 이 중중무진의 아름다운 세계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중생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하지만 반야의 눈에는 보이는 광대무변한 장엄의 세계. 나를 맑혔을 때 그 세계는 잠시 자신의 모습을 얼핏 보여준다. 그 광활하고 장엄한 세계 속에, 스스로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자아(自我)라는 것은 더 이상 없다. 이러한 장엄 세계를 화엄 사상에서는 온갖 꽃이 피어나 찬란하게 연기하는 현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을 '화엄(華嚴)', 깨달음의 꽃으로 장엄하는 세계라고 한다. 천년불교의 최고 정점에 있었던 고려시대. 당시 불교문화의 백미였던 고려불화. 고려불화 속에는 이 같은 법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아미타여래도', 한 몸 가득 품은 극락

불국토라고 말하는 세계. 화엄정토, 극락정토, 미륵정토, 약사유리광정토 등 다양한 정토(淨土)가 있다. 하지만, 공통점은 모두 더러운 번뇌를 여읜, 말 그대로 정토, 즉 청정한 세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속세를 예토(穢土)라고 한다. 법계, 진리의 세계로 통칭되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들의 일면모를 직접 만나보기로 하자. 고려불화 중에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미타여래도' (그림1) 디테일 속에 감추어진 진면목을 보도록 하자.



그림①



그림②

그림①. 일본 교토 선림사에 소장된 〈아미타여래도〉의 모습. 고려 후기에 제작됐다.

그림②. 〈아미타여래도〉의 부분으로, 부처님 오른쪽 납의의 문양이다. 문양은 경전에 나오는 보상화(寶相華) 또는 우담바라(優曇婆羅)화 한 것이다. 문양을 통해 고려 화승은 극락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잎새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 꽃송이는 일곱 가지 보배가 아름답게 열렸다. 아름다운 꽃송이들은 자마금의 찬란한 금빛으로 빛나며, 불바퀴처럼 잎사귀 사이를 선연하게 돌고 있다. 꽃봉오리에서 온갖 열매가 맺히는 모습은 흡사,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나오는 제석천의 보배 병과도 같으니라. 이 눈부신 광명은 그대로 깃발로 변해 헤아일 수 없이 많은 보배 일산이 된다. 그 보배 일산 속에는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부처님 세계의 일이 비쳐 나타난다.

–'보배 나무를 관(觀)하는 법' 〈관무량수경〉

아미타3부경 중의 하나인 〈관무량수경〉에 묘사된 극락정토의 모습이다. 아미타3부경 또는 정토3부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세 경전은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으로 모두 아미타불이 주재하는 정토세계를 기술하고 있다. 특히 〈관무량수경〉에는 단계별로 만나게 되는 또는 체험하게 되는 극락세계를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작은 머리로 이해하고자 하면 결코 가늠할 수도 또는 읽어 나갈 수도 없다.

왜냐하면, 언급된 단위나 넓이 등 그 규모가 인간이 측량 가능한 한계를 훨씬 넘어서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읽는가. 그냥 읽는다. 머리로 이해하려드는 순간, 이해가 안 되기에 더 나아갈 수 없다. 작은 단위로 그것보다 훨씬 큰 단위를, 거친 것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미세한 것을 포섭할 수는 없겠다. 아무 생각 없이 독송해 나갈 때, 이는 우리 본원(本源)의 세계이기에, 그 바탕 세계로 융해될 수 있다. 한 생각 굴리면, 바로 본원의 세계와 차단되어 버린다.

공의 바탕에서 피어난 꽃

'아미타여래도'는 한 몸 가득히 극락정토를 품고 있다. 그 디테일(그림2)을 보면, 위에 인용한 극락의 나무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 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미타여래의 (정면에서 보아) 오른편 무릎을 덮은 납의(衲衣)에 그려진 문양은 모란도 아니고 국화도 아니고 석류도 아니고, 작은 속계의 꽃으로는 특정할 수 없는 천상의 꽃이다. 아니 속계의 모든 꽃을 합쳐 놓은 듯한 우주의 꽃이다. 이를 경전에서는 보상화(寶相華) 또는 우담바라(優曇婆羅)라고 하기도 한다. 우담바라란 무슨 뜻인가. 의역하면 '공기화(空起華)' 또는 '영서화(靈瑞華)'라는 뜻이다. 이를 서응(瑞應) 또는 상서운이(祥瑞雲異)라고도 한다.

공기화란 공(空)의 바탕에서 일어난 꽃이란 말이다. 영서화는 상서로운 기운 또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응집하여 만든 문양이라는 뜻이다. 당초문이라는, 일본 학계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검증없이 통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경전에 나오는 보상화, 공기화 또는 영서화라는 수승한 용어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상서로운 기운이 서로 연기하면서 우주의 잎사귀를 피우고, 꽃잎을 피우고 있다. 그 가운데서 석류와도 같은 거대한 씨방이 보이고 거기에서는 포도알 같은 여의주들이 줄줄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 여의주 한 알이 한 우주이다. 무수한 우주들이 허허로운 바탕자리에서 춤추고 있다.

정적임 속에 파도치는 화려함

경전에 묘사된 아미타부처님의 '진신관(眞身觀, 진실한 몸을 관하는 법)'의 내용을 보면, "아미타불의 몸과 빛을 관(觀)하여라. 몸은 백 천 만억 야마천을 장식한 염부단금색(閻浮檀金色 또는 자마금색紫磨金色)과 같이 빛난다. 그리고 키는 60만억 나유타 항하사 유순이니라"라고 기술되었다. 60만억 나유타 항하사 유순이라니! 백 천 만억 야마천의 장식이라니! 이러한 아미타의 세계, 극락세계를 한 폭의 그림으로 옮긴 고려시대 화승의 기개가 놀랍다.

'아미타여래도'의 디테일에는 끊임없이 무상하게 파도치는 극적인 화려함이 연출되어 있다. 깊고 고요한 자색의 바탕 위로 변화무쌍한 보상화가 피어난다. 여기서 그림 바탕은 법신이고 그 위에 연출된 디테일의 에너지 문양들은 보신이고, 그것이 서응(瑞應, 임금의 어진 정치가 하늘에 감응되어 나타난다고 믿었던 길한 징조)하여 모양새를 이룬 아미타의 전체 형상은 응신이라 하겠다.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법신과 보신이 적멸과 연기의 균형을 이루며, 성스러운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다. 황금의 땅, 천상의 음악, 흩날리는 꽃비, 극락조의 비상, 향기로운 미풍, 금강석 영롱한 연못. 극락정토의 풍경을 부처님은 한 몸 품고 있다.

이 '아미타여래도'를 어느 강의에서 소개한 적이 있다. 다양한 디테일까지 샅샅이 공개하며 설명을 하였다. 너무나 아름다운 디테일에 취해 있던 수강생 중 한 명이, 강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질문한다. "그래서 도대체 이 문양들이 뭡니까?" 이에 "바로 내 모습입니다. 바로 처사님의 모습입니다."라고 하니, "네? 이게 제 모습이라고요?"라고 반문했다.

"네. 내가 번뇌를 벗었을 때의 내 모습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 스스로 추하게 느껴질 때도, 또 나약하게 느껴질 때도, 불안해 질 때에도, 이 불화를 보시고, '내 본래 모습이 저렇게 청정하고 아름답구나' 라고 아시고, 우리 함께 수행정진 열심히 기운내면 좋겠습니다."

처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 고였다.

〈중앙승가대학 교수〉

우공침술 개인지도

우공침술의 TLS 침법은 근육의 통증유발점(trigger point)을 기계적으로 자극하여 몸의 통증을 멈추게 하고 통증을 유발시키는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통증유발점을 기술적으로 자극하는 침법이므로 경락의 경혈들과는 무관한 과학화된 침법입니다. 따라서 통증치료에 관한한 TLS 침법이 단연 으뜸임을 자부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TLS 침법을 개인지도를 통해서 딱 6일 만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딱! 6일 동안만 시간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TLS 침법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침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딱 6일 동안만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딱 6일 만에 고통스러운 통증은 물론, 많은 질병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고 멋진 전문 침술인으로 변신시켜 드리겠습니다.
우공침술원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완벽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지방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수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우공침술'을 치시면 저의 블로그에서 '신보선의 침의학과 건강·의학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10-4054-7110
우 공 침 술 연 구 원

2021년
아랫녘수륙재보존회 신입생 모집

1. 모집대상 : 스님 및 불자, 작법무(불교무용)에 관심있는 일반인
2. 모집기간 : 2021년 1~2월, 3월 개강
3. 교육장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38 도지정무형문화재 민속예술전수관 3층
4. 연 락 처 : 055)246-3374, 010-3852-1760

교육과정

교육일시	강 사	강좌내용
매월 1·3주 월요일 (14:30~16:30)	석봉스님 지공스님	짓소리, 홑소리 안채비, 바깥채비
매주 화요일 (14:30~16:30)	보광화 수연화	작법무(학승무) 운심게, 다게, 삼귀의, 오공양, 요잡
매주 수요일 (14:00~15:00)	석봉스님 지공스님	<무료강습> 아랫녘수륙재활성화사업 일상생활 속에 심신달래기 사물, 입영, 착어, 독경배우기
매월 1·3주 목요일 (14:30~16:30)	현덕스님 원공스님	사물, 의식일부
매주 금요일 (14:30~16:30)	석봉스님 해공스님 지공스님	작법무(바라무) 천수바라, 사다라니, 요잡바라, 명바라, 화이재, 욕실게바라

특전 3년 교육과정 이수시 아랫녘수륙재 이사회 심사를 통해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시험 자격부여
사)국가무형문화재 제127호 아랫녘수륙재보존회 정식회원 인정가능

사)국가무형문화재 제127호 아랫녘수륙재보존회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